

Issue Paper 2020-01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지원 방안**
: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박종성·이수정

2020. 4.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지원 방안: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박종성¹⁾, 이수정²⁾

< 목 차 >

I. 서론	1
II.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	2
III. 코로나19 관련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	4
IV. 코로나19 관련 일학습병행 지원 방안	8
참고문헌	13

개요

코로나19³⁾의 세계적 대유행과 지역사회 감염 증가로 인해 사회·경제적 불안과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어 교육, 보건, 사회, 일자리를 비롯한 경제, 외교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숙련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을 위해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현장 중심(OJT)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일학습병행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20.2.7) 이후 학습근로자의 안전과 교육훈련 참여 위축에 따른 영향 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본 원고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따른 지원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코로나19, 일학습병행,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E-mail: parkjs@krivet.re.kr)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E-mail: crystal@krivet.re.kr)

3) 공식적으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지칭하나, 본고에서는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코로나19’로 통칭하도록 함.

I. 서론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저출산·고령사회 진입 등 경제·사회의 변화와 함께 고속로 일자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인력 양성·활용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이수정 외, 2018; 전승환 외, 2017).

정부는 2013년부터 산업 현장과 학교 교육의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일학습병행⁴⁾’을 추진해오고 있다. ‘일학습병행’은 독일과 스위스의 도제제도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게 설계한 ‘도제식 교육훈련 제도’로서 고교단계(산학일체형 도제학교⁵⁾)부터 재직단계까지 기업이 학습근로자에게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학습근로자 직무능력 향상, 기업의 생산성 향상, 신규채용자의 구직기간 및 비용 절감 등 의미있는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박종성 외, 2019; 안재영 외, 2019; 이수정 외, 2018; 전승환 외, 2017).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과 지역사회 확산으로 정부는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강화한 상황(‘20.2.23)이므로 학교와 산업현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일학습병행은 학습근로자가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면서 현장 중심(OJT)의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는 방식이므로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학습자의 안전과 함께 교육훈련 위축(개학·개강 연기, 휴강, 취업 지연, 민간 직업훈련기관 재정불안 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일학습병행을 운영하는 공동훈련센터(고교 및 대학)와 학습기업 관계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4) 제도도입 초기에는 제도명칭을 “일학습병행제”로 활용하였으나,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29호(제정 2014.10.29., 개정 2017.6.1.) 이후 ‘일학습병행제’를 ‘일학습병행’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일학습병행”으로 제도명칭을 일원화하여 제시하고자 함.

5)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고교단계의 일학습병행제로 2015년 9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되었으며 현재 143개의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음.

II.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훈련종료 후 평가 및 자격인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통용성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며, 2019년 12월 기준 15,369개 기업이 선정되고 12,652개 기업과 9만 1천여 명의 학습근로자가 훈련에 참여(누적 기준)하고 있다(박종성 외, 2019).(<표 1> 참조)

<표 1>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및 학습근로자 누적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선정기업	5,212	8,492	11,688	14,110	15,369
훈련기업	2,816	6,207	9,228	11,217	12,652
학습근로자	14,318	34,378	57,423	76,076	91,195

주: 재직자·재학생 단계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기업 1개소로 산정.

출처: 박종성 외(2019). 일학습병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공동훈련센터는 장기간 훈련(1년 이상)의 전(全) 단계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수행(기업발굴, 과정개발, Off-JT 실시, 기업 OJT 지원, 자격연계 외부평가지원 등)하며 일학습병행 훈련실시 및 촉진의 핵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4년 일학습병행 제도 시행 이후 공동훈련센터의 수는 <표 2>와 같다.

<표 2>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현황('19.1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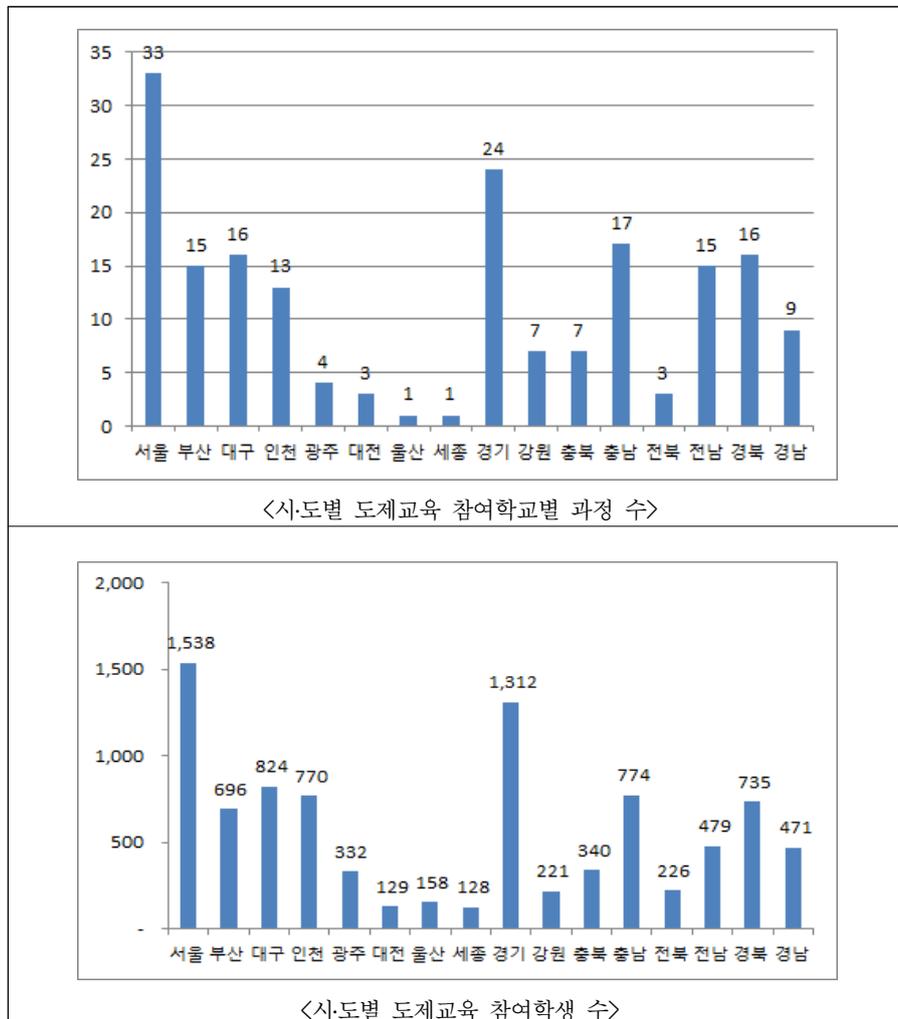
유형	체계명	참여 기관수	사업개시	선정취소
-	6개체계	217	-	12개 취소
재직자	재직자 공동훈련센터	67	2014년	8개 취소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38	2018년	-
재학생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66	2015년	1개 취소
	유니테크(Uni-Tech)	16	2015년	-
	전문대 재학생단계	3	2018년	-
	IPP형 일학습병행	37	2015년	3개 취소

주: 학습근로자의 88.3%(18,183명)가 공동훈련센터형 일학습병행 훈련 중(19년 9월말 기준)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19). 일학습병행제도 발전방안 6차 TF발표(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 및 운영 체계 개편(안))자료.

한편 고교 단계의 일학습병행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2019년 사회관계장관 회의(안건: “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를 위한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19.1.25.), 고용노동부의 도제학교 4차 산업혁명 유망직종 분야 선정 계획(‘19.11.12.)에 따라 도제교육 확대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학교 현황조사 기준(‘19.10.) 총 66개 사업단 184개 과정, 3,000여 개의 기업, 9,00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으며, 시·도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참여과정 수) 및 학생 수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시·도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참여학교(과정) 및 참여학생 현황



주: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경남 지역의 경우도 학교, 학생 수 비율이 높은 편임

출처: 안재영 외(2019). 2019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 현황조사의 데이터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재구성함.

Ⅲ. 코로나19 관련 일학습병행 운영 현황

1. 코로나19 발생 실태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였고(고용노동부, 교육부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등에서 가이드 제공 등), 일학습병행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 역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기 때문에 일학습병행 교육훈련과정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2020년 3월 24일 기준, 18개(학습기업 13개, 공동센터 5개) 기관에서 확진자 5명, 자가격리 56명이 발생하였으나 이 중 46명이 격리해제 된 상황(한국산업인력공단, 2020e)으로, 현재까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공동훈련센터(고교 및 대학) 운영

일학습병행 참여대학은 '20년 3월 현재 ①집체훈련 38개(34.5%), ②온라인 강의&과제물 제출 32개(29.1%), ③과제물 제출 17개(15.5%), ④온라인 강의 16개(14.5%) 등의 방식으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강연기에 따라 훈련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다.

<표 3> 공동훈련센터 훈련방식('20.3.9 기준)

(단위: 개)

구분		계	전문대	IPP 대학	대학연계형	P-TECH	유니테크	
계		110	6	36	17	35	16	
훈련 방식	비대면	온라인	16	-	14	1	1	-
		과제	17	1	2	5	8	1
		온라인 &과제	32	3	16	3	4	6
		논의중	7	-	2	2	2	1
	대면	집체	38	2	2	6	20	8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2020e).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정책국 내부보고('20.3.9.) 자료

한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는 학습근로자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므로 대학의 공동훈련센터와는 달리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은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도제식 현장 교육 훈련(OJT)은 고용노동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 시달’ 등 양 부처에서 제시한 방안에 근거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방안이 운영될 예정이다(<표

4> 참조. 현재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 개학 실시가 예고되고 2020년 4월 9일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3학년부처 순차적으로 학사 일정이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 '20.3.31.)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및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4>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방안

구분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운영 방안	수업일수 190일의 1/10 범위 내에서 줄여서 운영(천재지변 등)	· 학습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 필요시 훈련기간 연장제도 활용 · 학습시간 단축(능력단위별 80%이상 편성) 가능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64조(휴업명령 및 휴교 처분),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5조(수업일수), 「원격 수업 기준안」 교육부('20.3.27)	「코로나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추가 조치계획(안)」 고용노동부('20.2.7)

3. 공동훈련센터 및 학습기업 의견

공동훈련센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선통화와 서면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OJT는 1일 7시간 운영하고 부족분은 방학 중에 실시 예정이며, Off-JT 부족분은 주 1일 방과 후 2시간씩 2개월 실시하여 보충이 가능함. 다만, 재선정 평가 후 운영비가 20% 감축된 상태이므로 Off-JT 보강을 위한 정부지원금(내부 수당) 추가 교부 지원이 필요함 (△△경영고 ○○○교사, △△공업고 강○○ 교사)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일학습병행 이해,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은 교과목 및 창체 활동 시간에 넣어 8주로 운영하여 학생들의 기업 OJT 나가기 전에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음. On-line 교육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가능함. (△△컴퓨터고 이○○ 교사)
- 3월 초 Off-JT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3월 중순부터 훈련을 실시하였고, 현재 대학 e-campus를 활용해 학습근로자의 학점 취득에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음. 또한 OJT 실시 일정을 약 한달 간 연기하여 학습기업의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노력함.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낀 학습기업이 훈련실시를 포기한 경우가 2건 발생함. (△△대학교 안○○ 매니저)
- 현재 한시적으로 Off-JT 교과목을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고 있으나 온라인 강의의 인정 여부가 불확실함. 학습기업에서의 채택근무나 유·무급 휴가에 따른 최저임금 지급 여부, 전담자 수당 적용의 문제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대학교 최○○ 교사)

코로나19 대응 직업교육훈련 현황 및 지원 방안 : 일학습병행을 중심으로

- 비대면 훈련방식의 Off-JT가 한시적으로 인정되지만 학교에서 학점부여로 인정한 수업에만 적용됨. 대부분의 학과는 강의자료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학생들이 학습 후 과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 실습수업을 원격강의로 진행하기에는 교육훈련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또한 프로그램 활용이 미숙한 교원이나 불안정한 서버, 학생들과의 소통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기 어려움.
(△△대학교 김○○ 교수)
- 자격연계형은 비대면 강의를 인정되지 않아 훈련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임. 학습기업과 학습근로자들의 참여의지가 소극적임에도 훈련을 개설해야 하는 공동훈련센터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대학연계형의 경우, 원격훈련을 시행하고는 있으나 출석인정의 방법이나 전산시스템 이용방법 등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는 상태임. 이밖에도 재택근무·유연근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보건관리자를 지정해 1일 2회에 걸쳐 부서 직원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부서장 보고를 진행함.
(△△대학교 박○○ 교수)

학습기업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사업주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유선통화와 서면조사를 통해 코로나19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성동○○고 도제교육의 사전준비를 완료하였으나 개학 연기로 인해 외부 계약한 기숙사, 생산라인 장비 및 인력을 활용하지 못함. 거래처 직접 방문 자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거래처 관리, 수주 매출에 어려움을 느낌.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려움.
(△△학습기업 한○○ 이사)
- 기업의 매출은 감소하는 반면 임대료나 인건비와 같은 고정비용 지출을 막을 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 판촉비와 복지비 절감,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혹은 조율 등을 통해 고정비용을 감축하려고 함.
(△△학습기업 최○○ 대리)
- 사업장 내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비치, 출장 및 외근 자제, 외부인원의 내부 출입 자제, 건강에 이상 있는 근로자 자택근무 실시 등으로 대응하고 있음. (△△학습기업 오○○ 부장)

4. 정부 조치사항

첫째,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20.2.7)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추가조치 계획, 2차 추가 조치계획(안), 3차 추가조치계획(안)」(‘20.2.26, ‘20.3.11, ‘20.3.31)에 따라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운영 및 기간연장은 학습기업의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시 훈련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 특히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의 경우, 재직단계 공동훈련센터는 학습기업의 의견을 우선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훈련기간 연장제도를 활용하도록 권고하였다(고용노동부, 2020; 한국산업인력공단, 2020a-2020d).

둘째,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경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훈련 실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다. 대학연계형(IPP, P-Tech, 전문대) 역시 교육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12.)에 따라 4주 이내 자율적으로 개강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특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코로나 19 확산 대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사항」(‘20.3.25)을 통해 학습근로자의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간집중이수제를 권장하고 있으며,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20.3.27)을 발표하여 개학(휴업 종료)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해 학습 공백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셋째, 이 밖의 학습기업 지정, 기업전담인력 양성교육, 훈련과정 개발, 모니터링, 훈련기간 변경, 출석인정범위 등의 업무는 단계별로 조치하도록 하였다(한국산업인력공단, 2020a).

IV. 코로나19 관련 일학습병행 지원 방안

1. 경제적 지원 방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이 필수인력의 채용만을 유지하고 학습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자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지 못할 경우, 학습근로자의 신규채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우려되므로 경제적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훈련센터 및 학습기업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관련 경제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도제 교육의 장점은 현장중심이고 현장에서 배워야 하는데 매장의 매출과 고객 수 감소로 인한 경험치 부족으로 역량 떨어질 듯 예상함, 코로나 19 장기화 시 기업현장교사가 학교로 와서 수업을 실시하여 센터 OJT를 실시하고 훈련수당, 전담인력수당 지급이 필요함. (△△학습기업 박○○ 원장)
- 학습근로자에 대한 4대 보험 제공이 필수적이므로 학습기업의 채용 부담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조건 완화, 훈련비(OJT비용, 훈련지원금)와의 중복지급 허용이 필요함.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 요건이 일학습병행제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함(예: 지원받는 기간 내 신규채용 없어야 함 등). (△△대학교 안○○ 매니저)
- 공동훈련센터별 수요에 맞춘 동영상은 개별적으로 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동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거나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필요함. (△△대학교 김○○ 교수)
-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학습근로자들이 결석하더라도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고정비용이 요구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방역용품과 실시간 화상강의 환경 구축비용 등의 지원이 마련되었으면 함. (△△대학교 박○○ 교수)
- 정부 차원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에게 기업 규모에 맞추어 마스크와 소독제 지급 필요. 매출, 거래처, 계약수주 확인 후 정부 융자 지원금 확대 필요. (△△학습기업 한○○ 이사, △△학습기업 오○○ 부장)
-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이 필요함. (△△학습기업 최○○ 대리)

코로나 19 감염에 따른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한 경제적 지원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학습병행은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를 양성함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육훈련으로 이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해당 산업계의 숙련인력 양성의 전초기 지로서 역할을 하는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에 따른 갑작스런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현재 고용된 인력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계획된 일학습병행 훈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약 67%에 달하는 50인 미만 학습기업이 일학습병행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되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학습병행 참여로 인하여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를 신규채용으로 판단하지 않는 예외적 고려 등으로,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을 진행할 한계상황의 일학습병행 학습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제적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가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어 비대면 수업이 지속될 경우, 공동훈련센터(또는 산학일체형도제학교)에 동영상 제작비용을 지원하거나 비대면 수업에 적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 지원 검토가 필요하다. 일시적인 위기에 따른 해당 교육내용에 대한 교육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장소임차비, 장비 마련 비용과 제작에 참여하는 교·강사 인건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금액을 책정하고 이에 현재 운영 중인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의 현황과 연계하여 지원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학습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함께 재학생 및 재직자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여 국가의 인적자원 양성·활용 정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기업별로 학습근로자 채용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가칭)코로나19 직업교육훈련 긴급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경제적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 학습기업의 경우, 정부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책의 중복을 피하면서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저금리 대출, 일정세금 세율 인하 등의 세제 혜택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제도적 지원 방안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경우, 특별한 지침에 근거하여 일학습병행 사업 목표를 현실적으로 변경하고, 평가 지수를 완화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공동훈련센터(또는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및 학습기업 관계자들의 코로나19 관련 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 OJT 실시 기업의 폐쇄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기업에서 집합 훈련을 통한 OJT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체 방안 마련 필요함, 예를 들어 현재 제한하고 있는 센터 OJT를 통한 OJT의 일부 시수를 인정하는 방안, VET-MOOC 활용 등 온라인 교육을 통한 OJT 일부 시수 인정 등이 있음. (△△기계금속고 한OO 부장, △△공업고 강OO 도제부장)
- 학습기업 포기 등으로 사업실적 저하가 불가피함. 일학습병행 사업 목표의 변경(현실화) 및 평가 지수 완화 필요함. 또한 과제물 제출 등으로 대체된 Off-JT의 인정기간 연장이 필요함. (△△대학교 안OO매니저)
- 장기적으로 이론교과 등에 대해 비대면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Off-JT에 대한 학습근로자들의 출석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함. (△△대학교 김OO 교수)
- 학습근로자가 능력단위별 80% 이상 이수 및 내부평가 합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공동훈련센터는 훈련비용을 받지 못하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출결인정에 대한 예외조항이 필요함. (△△대학교 박OO 교수)
- 재직자 일학습병행 자격연계형 또한 학위연계형과 동일하게 Off-JT의 비대면 운영을 승인할 것을 요청함. 교육훈련 참여에 대한 성과평가 기준 검토, 공동훈련센터의 방역물품 구입 허용 필요해보임. (△△대학교 김OO 교수)
- 근로자들의 근무일수 단축에 따른 OJT 시간 또한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현행 규정상 OJT 시간을 연기한 경우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개인지원금의 감축되므로 기업에서는 OJT 운영이 어려움. (△△학습기업 최OO 대리)
- 화상회의 시스템 설치 지원이 필요하며, 발병기간의 출석 인정이나 과제물 대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함. (△△학습기업 오OO 부장)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학습병행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Off-JT의 경우 비대면 수업을 도입함으로써 학습근로자들의 출석 부담을 경감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근로자 중도탈락을 대비하여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훈련성과 미흡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약 217개에 대한 분기별 실적 검토를 통해서 코로나19가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공동훈련센터 유형별(재직자 공동훈련센터, 고숙련일학습병행(P-TECH),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유니테크(Uni-Tech), 전문대 재학생단계, IPP형 일학습병행) 인력 양성 목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학단계 공동훈련센터는 코로나19로 학습기업을 모집·발굴하기가 매우 어렵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를 포기하는 기업 등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공동훈련센터 유형별 훈련성과 등을 고려하여 '훈련성과 미흡기관'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Un-tact) 훈련 허용과 온라인 교육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직업훈련 실시 확대와 함께 질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대면(Un-tact) 시대를 대비한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교육콘텐츠'(VET-MOOC)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에서 구축한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step.go.kr)⁶⁾에 탑재된 일부 모듈을 활용하여 재학생 및 재직자 대상 직업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매뉴얼의 개발·보급을 통해 그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실시간 원격강의의 형태의 비대면 훈련을 한시적으로 인정⁷⁾하고 있으나 향후 비대면 교육에 대한 허용 요구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공동훈련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정보 전달 목적의 교육들에 대한 비대면 훈련을 허용하고, 교육훈련 분야와 목표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교육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는 일학습병행은 훈련 방법을 Off-JT와 OJT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원격강의 등 온라인 교육의 집체 교육(Off-JT)도 교육훈련 방법으로 허용하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훈련 방법을 다양화(Off-JT, OJT, On-line 등)하

6) 현재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STEP(step.go.kr)에 1,000개의 모듈이 개발되어 있으나 전 직업분야에 훈련모듈이 개발된 것은 아니므로 모든 직업훈련분야에서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7) 현재 코로나19 위기 등으로 인하여 일학습병행 집체훈련(Off-JT)을 할 수 없는 경우, 능력단위별 훈련의 목적 달성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실시간 원격강의 형태의 비대면 훈련(쌍방향 영상으로 소통 가능)을 한시적으로 인정(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3차 추가조치 계획(안), '20.3.31)하고 있음.

고, 훈련과정 개발 및 인정 기준도 수정·보완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강사가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하는 방안과 함께 여러 채널을 통해 공유되고 있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 이를 위한 전략 중이 하나로 최근 유튜브(www.youtube.com)에서 제공되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지식, 정보 제공과 함께 작업을 수행하는 장면 등의 콘텐츠, 전세계 209개⁸⁾의 AI MOOC 등에서 제공되는 공업계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 MOOC(<https://www.classcentral.com/subjects>)에서 제공되는 콘텐츠⁹⁾, 우리나라의 K-MOOC(<http://www.kmooc.kr/>)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등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국가 수준에서 일학습병행에서 온라인 교육이라는 새로운 교육훈련의 도입을 위해서는 해당 콘텐츠의 교육훈련 목표 및 분야와의 적합성, 학습근로자의 수준 및 특성(고교 단계 및 대학 단계) 등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근로자에게 해당되는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이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훈련 과제나 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강사의 교수·학습 운영 능력 향상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셋째, 코로나19로 인한 학습기업의 경영난으로 기업 운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 직업훈련 참여가 위축¹⁰⁾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학습병행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의 양성·활용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칭) 코로나19 극복 일학습병행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기업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학습근로자의 신규입직 기준 완화, 상시근로자 수 25% 이내에서만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제한 규정 완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학습기업의 지정요건의 한시적 조정, 교육훈련과정 개발 시 기업의 의견의 자율적으로 반영, 격년 참여를 허용하는 등 학습근로자와 학습기업의 여건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일학습병행 유형과 운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8) 세계 최대 MOOC 정보검색포털사이트(<https://www.classcentral.com/subjects>) Class Central에 등록된 주요 AI 과정 중 국내에서 개설한 과정은 연세대의 ‘Deep Learning for Business’ 1개 과정임.

9) 해외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MOOC들에 대해서는 학습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 및 자막 입히기 등을 위한 지원 등도 검토도 필요함.

10) 2019년 대비 2020년 2월 실적이 학습기업 참여비율이 11% 감소하였고, 학습근로자 참여비율도 17% 감소하는 등(한국산업인력공단, 2020d) 코로나19로 일학습병행 훈련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의 비상조치 강구가 필요함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직업훈련 조치사항」('20.2.7)
관계부처합동(2019).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19.1.25)
교육부(2020a).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 보도자료('20.3.27)
_____ (2020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대학 학사운영 가이드라인」('20.2.12)
_____ (2020c). 「코로나 19 확산 대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운영 사항」('20.3.25)
박종성 외(2019). 일학습병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원
인재영 외(2019). 2019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성과관리 및 발전방
안,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정 외(2019). 2019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재선정 평가 및 내실
화 방안, 교육부·충청남도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이수정 외(2018). 2018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 ③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인프라 구축, 교육
부·대전광역시교육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승환·오호영·이수정·김대영·이한별(2017). 일학습병행제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
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산업인력공단(2019). 일학습병행 제도발전방안 6차 TF발표(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 지원 및
운영 체계 개편(안)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2020a).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추가조치 계획」('20.2.26)
_____ (2020b).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2차 추가조치 계획(안)」('20.3.11)
_____ (2020c).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일학습병행 3차 추가조치 계획(안)」('20.3.31)
_____ (2020d).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일학습병행 특별유형 한시적 운영계
획(안)」('20.4.1)
_____ (2020e).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정책국 내부보고 자료('20.3.9)